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 을위한학부모단체연대	보 도 자 료	담당: 임미령 공동대표 010-9727-3208
---------------------------	----------------	-------------------------------

- 유치원교사와 보육 교사 근무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3.08.21.)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학부모연대’는 2023년 3월14일부터 4월 16일에 걸쳐 사립유치원교사 7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립유치원교사근무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장 교사들과 함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근무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제1발제를 맡은 송대현 전국참교육학부모회자문위원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원의 평균 근무시간은 10.1시간으로 나타나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하고 있는 정상 근무시간에 비해 3.1시간 더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매주 이틀 이상의 초과근무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응답장의 85.3%는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아(아예받지못함 78.7%, 가끔 받음 6.6%) 이는 위법사항에 해당하며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출산휴가가 부여된다는 응답은 6.3%,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88.8%였고, 병가가 아예 없다는 응답도 53.3%나 되었다. 이밖에도 근로계약과 신분보장, 보수 등의 측면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는 초중등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사들과 극명한 차이를 보여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런 열악한 교사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거의 방치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으로는 학급당 유아 수를 감축하여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복수담임제라도 우선 실시해야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사들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해야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인건비는 직접 지원이 가능하므로 시급하게 인건비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 ‘보육교사 근무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2발제를 맡은 김영명 아이행복세상대표는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인용하여 전체 보육교사 총급여는 263.5만원이지만 국공립과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은 4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1일 총근로시간은 약 9시간, 점심시간은 10분, 휴게시간은 42분으로 나왔으나 휴게 공간 미흡, 과도한 업무량, 보육의 특성상 점심시간도 급식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단위학교별 탄력적근무시간제를 보육교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함미영 공공운수노조보육지부장은 휴게시간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으로 교사에게 사인을 강요하는 사례가 일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고 하였다.

한편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정규직계약을 한 경우는 34.6%에 불과하며, 급여 책정시 이전 어린이집 경력반영은 국공립 96.8%인데 비해 민간 11.9%, 가정 8.5%라고 하였다. 또한 연가휴가 사용일수는 국공립 13.5일 민간 11.5일, 가정 11.1일로 평균 경력을 고려했을 때 평균 5일 정도 부족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육교사의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침해 주체로는 부모가 71.9%로 가장 높으며, 원장이나 위탁체 대표 33.0% 동료교직원은 14.6%라고 하였다. 처우 개선 방안에서는 정책적 지원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가 핵심이므로 무엇보다도 인건비 개선에 집중해야하며, 전체적인 근무 조건 개선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낮은 쪽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토론자로 나선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은 우선적으로 높은 교사 대 아동비율의 문제를 해결해야 보육교사의 소진을 막을 수 있으며, 농어촌초과보육과 탄력 보육 허용으로 심한 경우 정원의 두배나 되는 원아들을 받는 경우도 있고, 가정 같은 경우 교사겸직원장 허용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담임교사와 대체 교사, 연장 전담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제도들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육 교사의 급여를 최소 국공립1호봉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이 있어도 처벌이나 강제조항이 없으며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최저임금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한편으로 직장내 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괴롭힘 없는 어린이집만들기 캠페인 및 괴롭힘금지교육을 의무화해야하며,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폭언, 아동학대의심, 지속적인 항의, 가학적인 사과 요구 등으로 고통 받고 있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등에서 대응메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것과 학부모와의 갈등 시 원장의 적극적인 소통과 해결사 역할 강화와 책임감 부여가 필요하고 보육 교사들에 대한 치료와 상담 지원 및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특히 아동학대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심만으로 무분별한 CCTV 열람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로 보육교사 인권이 침해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보육교사는 CCTV 열람권이 없어 자기 방어가 어려우며, 경찰조사와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분리조치 기간 동안 보육교사들의 급여 보존이 안되어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로 판단이 날 경우 즉시 해고되는 경우 억울해도 재심 제도가 없어 구제 방법이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 한편으로 토론자로 나온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박다솜위원장은 국공립유치원 교사가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수와 신분보장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업무 부담, 과밀한 학급당 학생 수, 지원인력 부족, 열악한 시설 환경, 근무시간, 관리자의 갑질, 각종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있어서는 사립유치원 교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99%의 교사가 현행 학급당 유아 수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근무 시간 내에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응답자의 과반이 훨씬 넘는 교사들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더 오래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나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응답이 74.5%에 달한다고 하였다. 또한 법정 휴가를 사용하는데 눈치를 봐야한다는 응답자가 74.3%로 나왔으며 설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육아시간과 같은 제도도 사용하기 어려워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고한 아동하게 신고 및 신고협박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5.1%나 되었다.

정책 개선 방안에서 박다솜 위원장은 의무교육이 아닌 사립중등학교에도 교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므로 사인이 설립하기는 했으나 사립유치원 교사에게도 인건비를 지원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립유치원 법인화, 기관투명성 확보방안 강화, 표준유아교육비산정 방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의 저출생 상황에 맞추어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및 법제화가 필요하며 교원 확충과 전담 교사 배치, 각종 업무 지원 인력 확충으로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여 교육에 전념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방지 제도 마련을 위해 유치원 교육 활동 침해 실태 조사와 각종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학교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하였다.

□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연대 조선희 대표는 장애영유아를 이한 보육교사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교실에 보조교사 및 행정인력과 비담임교사 지원 등 보조 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3-5세 장애유아들을 위한 특수교사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교사들의 처우를 학교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보육교사 자격제도에 급수 제도를 적용하여 전문성을 향상 시키자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영유아교사협회 이재필 회장은 학과제로 되어 있는 유치원 자격을 가진 많은 유치원 교사들이 어린이집에 취업하고 있는 현실이 유보통합 상황에서 시사하는 점은 결국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이 교사들에게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으며, 교사 자격 승급의 기회에 있어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자격 연수의 기회가 어린이집이 훨씬 빠르게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책임성'을 들며 교육부에 비해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의견 수렴이나 소통에 훨씬 개방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는 하지만 현재의 교육부와 유치원 시스템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로 보육 교사들을 교육부로 귀속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며 향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를 촉구 하였다.

※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학부모연대는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문의: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공동대표 임미령(010 9727 3208)

[토론회 사진]



[토론회 포스터]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근무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23.08.18(금) 오후 5시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중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튜브 채널

사회 |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좌장 |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공동대표)
발제 | 송대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
토론 |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보육지부 지부장)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 회장)
조선경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대표)
유보통합추진단 교사 정책 담당자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주최 :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공동주관

공공운수노조보육지부,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영유아교사협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연대민주주의포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장애영유아학부모회

후원 : 아이미소유아교육연구소